

CPI는 식었는데 유가는 80달러 — ‘완화’와 ‘에너지 쇼크’가 하루 안에 맞붙다

화요일 미국은 6월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소식에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내렸습니다. 같은 날에도 미-이란·호르무즈 뉴스로 원유는 80달러 전후에 머물렀고, 연준 의장 Warsh는 ‘오늘 숫자로 임무 완수가 아니다’고 했습니다. 한국은 월요 급락 뒤 코스피가 조금 반등했고 원/달러는 1,493원으로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. 아래는 그 하루를 쉽게 풀어 읽은 안내입니다.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.

지표	S&P 500	Nasdaq	KOSPI	WTI	US 10Y
종가	7,544	26,110	6,857	~\$80	4.565%
Δ	1D +0.38%	1D +0.91%	1D +0.73%	주중↑	1D -5bp
한줄	CPI 완화	칩 반등	월요 뒤 숨	Hormuz	금리↓
as-of	2026-07-14 close (B) · Core CPI 2.6% YoY · USD/KRW 1,493원 · Gold ~\$4,080(C)				

※ 의사결정 지원 자료입니다. 매수·매도 지시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. 기준일: 2026-07-14 마감 · 작성 2026-07-15.

§1. 세계 경제 — 어제(7/14)를 쉽게

한 줄 요약

물가 뉴스는 ‘조금 안심’을, 유가는 ‘아직 경계’를 동시에 말했습니다. 미국 지수는 올랐고 금리는 내렸지만, Hormuz가 열려 있는 한 완화 랠리를 확정으로 읽기 어렵습니다.

물가 — 헤드라인·코어가 둘 다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

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6월 소비자물가(CPI)는 전년 대비 **3.5%**로 내려왔고(5월 4.2%), 전월 대비로는 **-0.4%**를 기록했습니다. 시장 예상(약 3.8%·-0.1%)보다 더 식은 숫자입니다. 먹거리·에너지를 뺀 코어는 전년 **2.6%**, 전월은 포함(0.0%)이었습니다(BLS 요지·Reuters/FXStreet 07-14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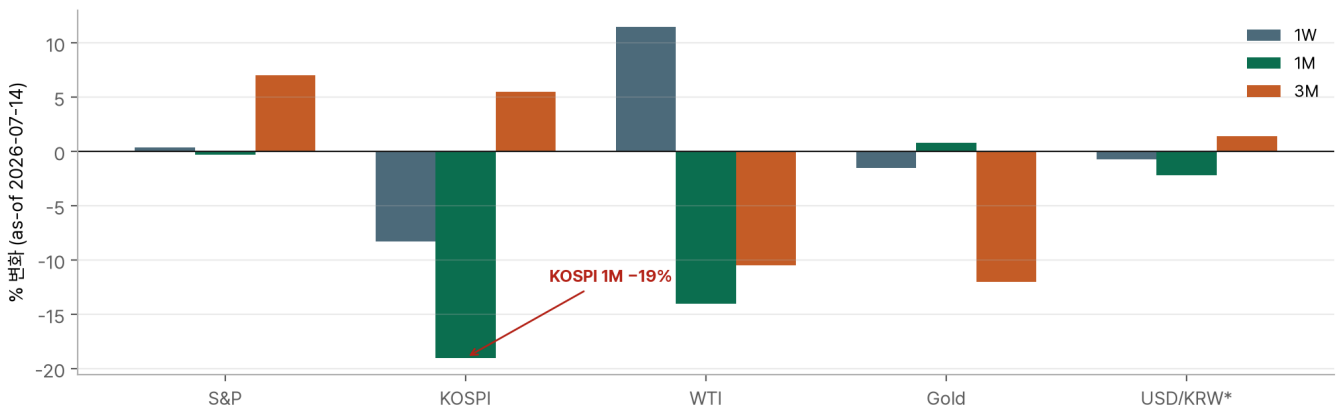
쉬운 말 · CPI: 가게가 쓰는 물건·서비스 가격의 평균 변화. 코어: 들쭉날쭉한 에너지·식료를 빼 본 ‘속살’ 물가. 시장은 가까운 연준 금리 인상 기대를 줄였고, 7월 동결 쪽으로 무게를 옮겼다는 보도가 많습니다.

주식 — 미국은 Nasdaq이 앞서고, 한국은 부분 반등

S&P: 500은 **7,544.03(+0.38%)**, Nasdaq은 **26,109.65(+0.91%)**, 다우는 **52,527.56(+0.05%)**로 마감했습니다. 대형 은행 실적이 무난했고 칩주가 반등한 반면, IBM은 매출 가이드نس 경고로 크게 빠졌습니다(Reuters/Economic Times 07-14/15).

코스피는 **6,856.83(+0.73%)**으로 월요(-8.95%) 충격을 하루 만에 조금 메웠고, 코스닥은 **783.98(-1.92%)**로 온도차가 컸습니다. 기관·외인 매수가 반도체를 받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(Businesskorea-Aju 07-14). ‘추세가 뒤집혔다’보다 **급락 뒤 숨 고르기**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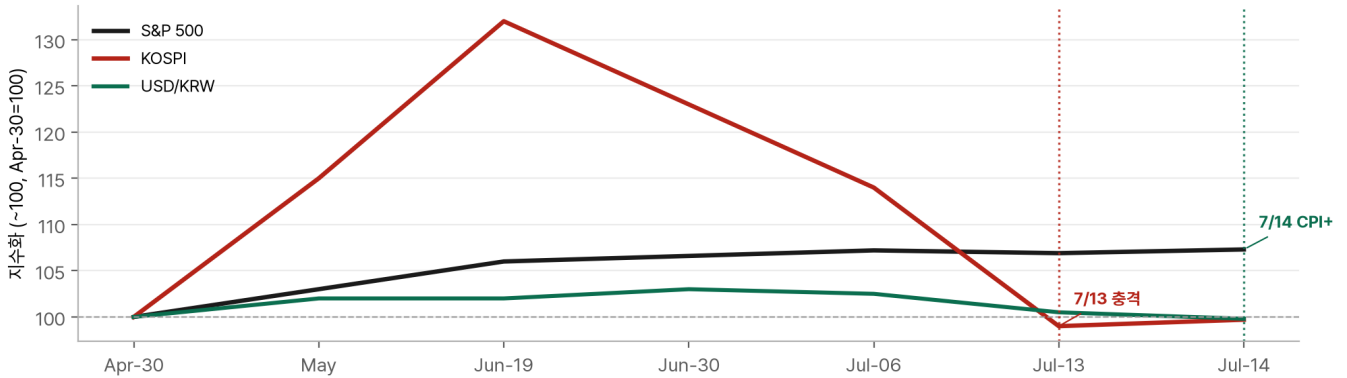
쉬운 해석: CPI는 식혔지만, 한국·유가는 아직 진폭이 큼 — ‘완화 확정’이 아님



*USD/KRW↓% = 원 강세 출처: FRED/Investing/KRX/Reuters/Infomax · close 2026-07-14 · 일부 C

쉬운 말 · 1W/1M/3M: 같은 지표를 짧은·중간·긴 기간으로 나란히 보는 방법. 진폭: 위아래 움직이는 크기.

쉬운 해석: 7/13 충격 뒤 미국·원화가 먼저 숨 고르고, 한국은 약한 반등만



지수화 재구성 B/C · 출처: Investing/Reuters/KRX-Infomax · as-of 2026-07-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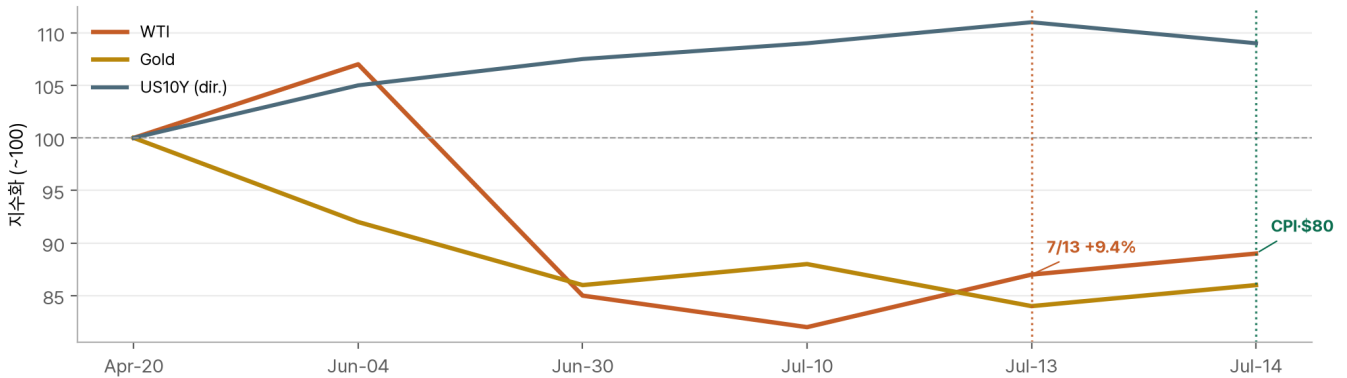
쉬운 말 · 부분 반등: 떨어진 만큼을 다 메우지 못한 되돌아움. 이미 반영: 좋은/나쁜 소식을 주가가 미리 가격에 넣은 상태.

원유·금·금리·환율 — 같은 날, 서로 다른 메시지

WTI는 월요 결제 **78.14달러(+9.4%)**에 이어 화요일에도 **80달러 전후**까지 연장 상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(FXStreet·Sprague 07-14). 미군이 이란 항만 봉쇄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해협·공습 헤드라인이 프리미엄을 키웠습니다(AP 07-14).

금은 CPI 뒤 **약 4,080달러** 근처까지 되찾았고(+약 2%대, C), 미국 10년물 금리는 **약 4.565%**로 전일 대비 약 5bp 내려갔습니다(FXStreet·Investing.com 07-14). 원/달러 서울 증가는 **1,493.0원(-10.4원)**으로 원화 강세였고, 수출기업 달러 매도 등이 상단을 눌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(Yonhap Infomax 07-14).

쉬운 해석: CPI로 금·금리 방향은 바뀌었지만, 유가는 Hormuz가 아직 위에 올려 둬



힌트: WTI ~80·Gold 4,080 · US10Y ~4.565% (2026-07-14, B/C) · US10Y 방향 스케일 C

쉬운 말 · bp(베이스스포인트): 금리 0.01%포인트. 프리미엄: 불안해서 가격에 없는 할증. 기회비용: 금을 들면 받지 못하는 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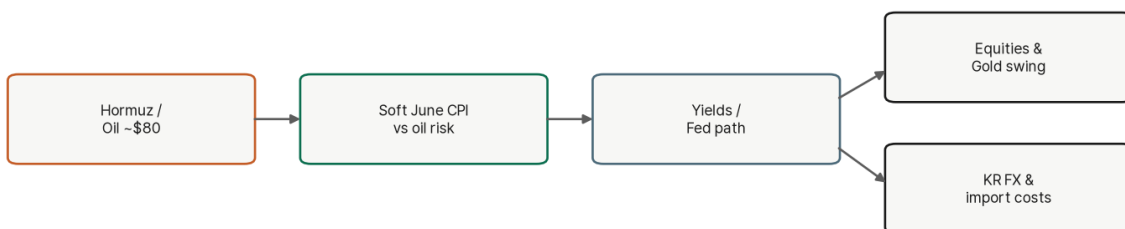
연준 — 숫자와 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

Warsh 의장은 하원에서 인플레이 서지를 끝내겠다고 했고, 부드러운 CPI에도 ‘mission accomplished가 아니다’는 취지를 남겼습니다(FMT·TechTimes 07-14). 시장은 7월 인상 확률을 크게 낮췄지만, 유가·에너지가 다시 더러워지면 연말 경로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. 수요일 상원 증언이 공개적 메시지의 짧은 창입니다.

충격은 어떻게 우리 생활·회사로 오나

아래 그림은 ‘지금 사라’는 신호가 아닙니다. 어제처럼 **CPI는 원화 · 유가는 경계일** 때, 기대 인플레이·금리·주식·환율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도입니다.

충격이 흐르는 길 — CPI는 내렸어도, 해협·유가가 다시 기대 인플레이를 건드린다



핵심 갈등: 어제 CPI는 ‘식었다’인데, Hormuz-WTI \$80는 ‘다시 더러울 수 있다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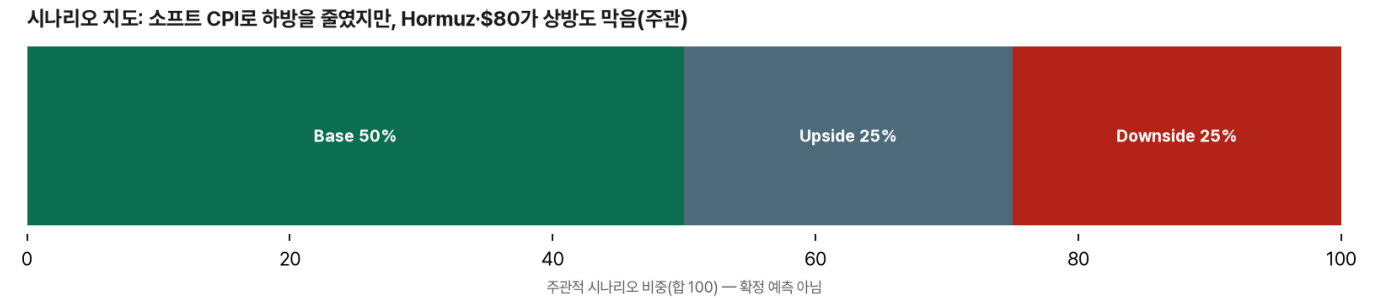
정리하면 ‘연착륙 확정’도, ‘스태그플레이션 확정’도 아닙니다. 물가의 속살은 식었지만 에너지가 다시 끈적해질 수 있고, 돈값은 내려갔어도 연준 말은 여전히 경계입니다. 한국은 월요 급락의 여진 속에서 수급·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.

앞으로 볼 시나리오 (가능성 가중 · 예언 아님)

아래 %는 확정 확률이 아닙니다. 배후 논리: 소프트 CPI로 **하방(어제 35%대)을 25%로 줄이고 기본을 50%로 올렸습니다**. 다만 WTI ~\$80·봉쇄 재개·Warsh의 경계 톤 때문에 상방(완화 랠리 연장)도 25%로 제한합니다(C).

- **기본 50%** — CPI 소하 · 금리 박스 · Hormuz 추가 급악화 없음 · KR 차별 반등. 깨지면: 유가 재가속 또는 상원 증언의 강한 인상 시사.
- **좋은 쪽 25%** — 해협·봉쇄 헤드라인 완화 + 유가 되돌림 + 기간물 매수 지속. 깨지면: 선박 공격·봉쇄 강화 뉴스 연속.
- **나쁜 쪽 25%** — Hormuz·유가 스파이크 재가속 또는 매파 톤 강화 → 금리·원달러·KR 베타 재타격. 깨지면: 유가·금리가 동시에 안정되고 외인 수급이 정상화.

체크리스트(48h): Warsh 상원 톤 · WTI/\$80 · Hormuz 통과·보험료 · KOSPI 6,850대 · 원/달러 1,490선 · 10년물 4.55~4.60% · 7/24 관세·301 일정.



글로벌 이슈 세 줄 (경제에 닿는 것만)

- **전쟁·안보** — 미 항만 봉쇄 재개·공습 지속. 해상 원유·LNG 프리미엄(AP 07-14).
- **국가간·정책** — Warsh 상원 증언·연준 블랙아웃 전 메시지 창(TechTimes 07-14).
- **발명·기술** — OpenAI×Broadcom Jalapeño(커스텀 AI 추론 칩)와 IBM 가이던스 충격이 ‘AI 예산이 어디로 가나’를 동시에 보여 줍니다(OpenAI·Reuters 요지). 월요일 통합호(\$2)에서 더 깊게 다루고, 오늘은 매크로 경로(캡엑스·전력·할인율)만 메모합니다.

우리 회사·가정에 던지는 질문 (지시 아님)

핵심은 ‘수익 보장’이 아니라 **운전 조건(원가·환율·심리)**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.

- 원/달러가 1,490대일 때 달러 결제를 나눠 집행할 것인가?
- 유가·운임 조항을 계약에 열어둘 것인가?
- 7/24 관세·한미 301 일정을 수출 메모에 올릴 것인가?
- 지금은 ‘변동성을 안다’만으로도 충분한가?

출처

- S&P; / Nasdaq / Dow: Reuters · Economic Times 예비 증가
- KOSPI / KOSDAQ: Businesskorea · Aju Press · Yonhap Infomax
- CPI / Core CPI: BLS 요지 (FXStreet · Reuters 정리)
- US 10Y: Investing.com / Trading Economics
- WTI·Gold·BTC: FXStreet · Sprague · DailyXBT (일부 C)
- USD/KRW: Yonhap Infomax
- Hormuz·봉쇄: AP News
- Warsh 증언: FMT · TechTimes
- AI 칩·IBM: OpenAI / All About Circuits · Reuters
- 기준 수치: 2026-07-14 정규장 마감 · 작성일 2026-07-15. 시나리오 %는 주관적 가중이며 확정 예측·매수매도 자문이 아님.
- 호수 HQ-ECON-2026-07-15 · 일간 경제(프레스) · 영문 Executive·위터마크 없음 · 출처 필수.